



## 모죽지랑가 (募竹旨郎歌) ' 아동음 (阿冬音) ' 의 해독 재고

Reconsideration of deciphering the ' A-tong-eum ' in Mochukchirangka

---

저자 (Authors)	김유범 Yu Pum Kim
출처 (Source)	<a href="#">한국어학 7</a> , 1998.6, 99-115 (17 pages) <a href="#">Korean Linguistics 7</a> , 1998.6, 99-115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학회</a>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827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8276</a>
APA Style	김유범 (1998). 모죽지랑가 (募竹旨郎歌) ' 아동음 (阿冬音) ' 의 해독 재고. 한국어학, 7, 99-11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9 12:0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慕竹旨郎歌 ‘阿冬音’의 解讀 再考\*

金 裕 範

### 요 약

본고는 난해어로 꼽히는 〈慕竹旨郎歌〉의 ‘阿冬音’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해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金完鏞(1980, 1985b)를 주검토 대상으로 이 해독이 갖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차자 ‘阿’를 혼독하는 문제와 ‘冬音’을 중세국어의 ‘드름’과 연결시키는 문제, 그리고 해독된 ‘두던 드름’이 갖는 의미적인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필자는 ‘阿冬音’을 모두 음독하는 입장에서 ‘冬音’의 어형 재구에 초점을 두었다. 지명 표기에 나타난 ‘冬音’을 통해 이것이 ‘\*듬’에 대응함을 보이고 ‘阿冬音’의 어형을 ‘\*아듬’으로 재구했다. 또한 그 의미는 [美]로 파악했다. ‘阿冬音’은 해독의 성공 여부를 떠나 借字의 運用과 末音添記의 用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 대상이다.

주제어 : 慕竹旨郎歌, 阿冬音, 冬音, 두던, 아듬

### 1. 序言

郷歌의 解讀은 국어사 연구의 발전 尺度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그만큼 향가의 해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던 해독이 비록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해독을 시도

\* 본고는 1998년 2월 13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16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본고의 지정토론을 맡아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부경대 박영준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謝意를 표한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선배 解讀者들의 노력과 그간 국어학계가 쌓아올린 소중한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비교적 운이 좋은 해독자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동안 이루어진 향가의 해독 중 再考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慕竹旨郎歌〉의 ‘阿冬音’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鄉歌 해독에 있어 難解語로 불릴 정도로 그 해독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池憲英(1963, 1964)와<sup>1)</sup> 같은 개별 논문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향가 해독의 중심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필자는 우선 이를 대상으로 한 기존 해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해독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sup>2)</sup>

## 2. ‘阿冬音’ 解讀에 관한 反省

2.1. ‘阿冬音’에 대해서는 ‘어디매’(小倉進平) 이후 ‘아름’(梁柱東)을 기점으로 이어진 ‘어두름’(홍기문), ‘아드름’(池憲英, 徐在克, 최남희), ‘아섬’(정렬모), ‘아돔’(김선기, 鄭然榮), ‘아듬’(鄭然榮, 申載弘), ‘아돌음’(金俊榮), ‘아돌옴’(俞昌均) 등 다양한 해독이 선보였다. 이들은 ‘阿冬音’을 한 단위로 인식하고 세 개의 借字를 모두 音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金完鎭(1980)과 金完鎭(1985b)는 그 자신이 解讀의 語學的 基準으로 삼정한 訓主音從의 기준을 ‘阿冬音’에도 적용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해독하였다.<sup>3)</sup>

- 1) 〈慕竹旨郎歌〉에 대한 전체 해독이 ‘阿冬音’에 歸結되고 있는 이 논문들에서는 ‘阿冬音’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多角度로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阿尸兮’, ‘阿冬兮’, ‘斤鳥兄’, ‘阿等邊’, ‘迎日’ 등과 같은 지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阿冬音(아드름)’의 語義를〔統合〕(併合·安定)으로 추정하였다. ‘阿冬音’의 연구에 있어 기본적이고 동원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실히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2) 본고는 金完鎭(1980, 1985b)를 주검토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金 교수의 해독이 語學的 觀點에서 있어 매우 탄탄한 배경을 가졌고 동시에 남다른 독창성을 보여주어 현재까지 가장 典型的인 해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1)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慕竹旨郎歌 3〉

가. ㅁ둠꺾 볼기시온 (金完鎭, 1980)

나. 두던 ㄷ룸꺾 도흐시온 (金完鎭, 1985b)

이 해독들의 기본 출발은 '乃叱'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小倉進平의 '나롤'로부터 梁柱東의 '나토샤온' 이후 관행처럼 音讀해 오던 요소였다. 金完鎭(1980)은 이에 疑懼를 표시하며 '乃'를 訓讀하고 '叱'은 그것의 末音으로 파악하여 이를 添辭 '-꺾'으로 읽었다. 이는 '阿冬音꺾'의 형태, 즉 '阿冬音'을 명사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해독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로 부터 출발한 '阿冬音'의 해독은 '阿'를 訓讀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하나의 명사 'ㅁ둠(殿閣)'을 거쳐 두 개의 명사 '두던 ㄷ룸'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두던'은 '阿'의 訓인 '두던'(cf. 흙두덩이, 눈두덩이, 볼두덩이)으로부터, 'ㄷ룸'은 중세국어에서 명사에 직접 연결되면서 주어나 목적어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ㄷ룸, ㅅ룸'으로부터 각각 착안된 것이다. 金完鎭(1986:1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阿冬音'을 이렇듯 '두던 ㄷ룸'으로 읽는 것은 해독자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확신에 찬 해독으로 여겨지고 있다.

2.2. '阿冬音'에 대한 (1)과 같은 解讀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借字 '阿'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던 것으로, 鄉歌뿐만 아니라 다른 借字表記 資料에서도 차자 '阿'가 訓讀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1)과 같은 해독은 이곳의 '阿'를 매우 특이한 용법으로 처리하게 한다.

朴炳采(1966)에서는 '阿'가 詩經, 書經, 易經 등과 같은 中國古典에서 실제로 그 사용된 빈도가 매우 낮음에 비해 佛典譯經에서는 '阿羅漢', '阿修羅',

3) 최근 양희철(1997)은 '阿冬音'을 '阿'의 훈 '두들, 두들, 둔덕'에 주목해 '두들음'으로 해독하였는데, 이 역시 차자 '阿'를 혼독했다는 점에서 金完鎭(1980, 1985b)와 같은 유형의 해독이라고 할 수 있다.

‘阿那伽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固有名詞 표기에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漢譯 不羈語에 사용된 借字들이 우리의 차자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제의 用例들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阿’는 韻書에서 전통적으로 歌韻 影紐로 분류되고 ‘烏何切(廣韻)이나 ‘於河切(集韻) 등으로 그 音價가 표시되었던 음이었으므로 이것이 국어의 ‘아’를 표기하는 데 적절한 漢字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어의 人名, 地名, 官職名과 같은 固有名詞의 表記에 있어서 이 ‘阿’가 사용된 경우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그 음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鄉歌 작품들에 등장하는 ‘阿’ 역시 모두 音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實例는 이미 梁柱東(1965)에서 풍부하게 제시되었고 兪昌均(1996)에서도 여러 例들을 통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阿’는 중국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母音 [a]를 표기하기 위한 대표적인 借字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阿’의 쓰임은 ‘阿冬音’에 사용된 ‘阿’에 대해서도 이를 音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접근 방안임을 말해 준다.

한편, 金完鎭(1980, 1985b)에서 ‘阿冬音’의 해독에 있어 固守하고 있는 訓主音從의 기준은 보편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鐵則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 例로 金完鎭(1980)에서 해독한 〈兜率歌〉의 두 번째 句에 나오는 ‘巴寶白乎隱花良汝隱(보보솔본 고자 너는)’에서 ‘巴寶白乎隱(보보솔본)’은 訓主音從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3. 金完鎭(1985b)에서 ‘阿冬音’의 해독이 ‘드듬’에서 ‘두던 드름’으로 수정된 것은 ‘阿冬音’의 ‘冬音’을 ‘阿’에 대한 말음첨기로만 생각했던 金完鎭(1980)의 입장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阿冬音’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던 기존 해독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두 개의 단위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독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다.

金完鎭(1985b)는 ‘두던’을 ‘阿’의 가장 일반적인 訓으로 상정하였는데, 그것은 石峯千字文에서 ‘阿’에 대한 훈이 ‘두던’으로 된 것과 다른 문헌들에 ‘두던’이라는 용례가 귀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阿’에 대한 여러 漢字學習書들의 풀이와 ‘두던’이 사용된 실제의 용례들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가. 阿 ㅅㅁ 아 <光州千字文 23a>

阿 두던 아 <石峯千字文 23a>

阿 의지홀 아 倚也 ㉠고블 아 曲也 ㉡언덕 아 大陵 棟也 ㅅㅁ 執也  
--誰 <註解千字文 23a>

阿 아당 아 <新增類合 下 44b>

阿 ㅅㅁ 아 隈也 曲也 丘也 又慢應聲 又音遏 釋典 --難 又美也 <訓蒙字會(初) 下 8b>

나. 阜 두던 부 <光州千字文 23b>, 率 두던 고 <光州千字文 31a>

阜 두던 부 <石峯千字文 23b>, 率 두던 고 <石峯千字文 31a>

京 서울 경 --師 ㉢클 경 大也 ㉣두던 경 高丘 ㉤ㄹ경 齊也 憂也 -- -- <註解千字文 18a>

丘 두던 구 <新增類合 上 5b>, 原 두던 원 <新增類合 上 6a>

丘 두던 구, 原 두던 원, 阜 두던 고, 阜 두던 :부 <訓蒙字會(初) 上 2a>

龐公이 반가러를 그치고 두던 우회 잇거를 겨집과 즈식은 앞피셔 기슴미더니 <龐公이 釋耕於壘上이어늘 而妻子 | 耘於前히더니> <翻譯小學 九 91a>

(2-가)에서 보듯이 ‘阿’가 ‘두던’으로 풀이된 곳은 「石峯千字文」 오직 한 곳뿐이고 「光州千字文」과 「訓蒙字會」를 통해 오히려 ‘阿’에 대한 전통적인 훈은 ‘ㅅㅁ’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또한 (2-나)에서 ‘두던’의 뜻을 갖는 것으로

4) 『光州千字文』(1575)이 보여주는 釋의 保守性에 대해서는 李基文(1973) 참조.

“... 그 釋이 매우 保守的인 方言의 要素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런 可能性은 희박한 것 같다. 이 光州 千字文의 價値는 漢字의 釋音을 보여주는 千字文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最古本이라는 데 있다. 특히 그 年代에 비하여 釋이 매우 保守的인 사실이 우리의 注目を 끌어 마지 않는다.”

는 '阜, 丘, 壘, 原' 등과 같은 漢字가 보편적이었고 '阿'가 '두던'의 뜻으로 사용된 예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때, 이 노래의 表記者가 정말 '두던'을 표기하고자 했다면 '阿'보다는 '阜'나 '丘'와 같은 字를 이용하는 것이 수궁하기 쉬운 처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필자는 '阿'의 훈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詩經』 小雅에 있는 '隰桑'이라는 다음과 같은 詩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 (3) 隰桑有阿<sub>하어</sub> 其葉有難<sub>이로다</sub> 既見君子<sub>호니</sub> 其樂如何<sub>오</sub>(第一章)  
 隰桑有阿<sub>하어</sub> 其葉有沃<sub>이로다</sub> 既見君子<sub>호니</sub> 云何不樂<sub>이리오</sub>(第二章)  
 隰桑有阿<sub>하어</sub> 其葉有幽<sub>로다</sub> 既見君子<sub>호니</sub> 德音孔膠<sub>로다</sub>(第三章)  
 心乎愛矣<sub>어니</sub> 遐不謂矣<sub>라는</sub> 中心藏之<sub>를</sub> 何日忘之<sub>리오</sub>(第四章)

이 詩는 濕地에서 자라는 뽕나무가 아름다워 그 잎이 무성하고 광택이 나며 검은 빛을 띠고 있다는 것으로 詩興을 일으켜 君子를 보게 된 기쁨을 표현한 興體의 詩이다. 특히 마지막 四章에서는 평소 親愛하던 君子를 보게 되었으나 차마 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 속에 묻어 둔 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詩人의 淳朴한 마음이 절제된 표현으로 그려져 있다. 이 詩에 대해 朱子是 第一章에 다음과 같이 註를 달아 놓았다.

- (4) 興也 隰下濕之處 宜桑者也 阿美貌 難盛貌 皆言枝葉條垂之狀 …

이것은 一章의 詩가 興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隰', '阿', '難'의 뜻을 풀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阿'에 대한 풀이다. 이 때 '阿'는 [美]의 뜻을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梁柱東(1965)에서 '阿冬音'의 해독으로 상정했던 '아름'을 떠올리게 한다.<sup>5)</sup> 이 詩에 쓰인

5) '阿'가 [美]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그 근거는 이 詩에서 사용된 '阿'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阿'가 비록 古字의 용법으로 쓰여 많은 글자의 兼職現象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지만,<sup>6)</sup> 이것이 [美]의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우리 문학에 대한 「詩經」의 문학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상상은 아닐 수 있겠으나 音讀의 용법이 일반적인 '阿'를 이 한 곳에서만 갑자기 訓讀해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阿冬音'의 '阿'가 진정으로 訓讀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여기에는 반드시 指定文字 '支'이 쓰여야 했다. 이런 자리에 指定文字를 쓰지 않는다면 指定文字의 존재는 有名無實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7)</sup>

다음으로 '드름'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冬音'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語形에 있어서는 가능한 해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남게 된다. 먼저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中世國語에서 '드름'이 선행 명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사이시옷의 표기가 缺如되어 있다.

(5) 부터 몫 드름미 現홀 뿌니 아니니라 <釋譜(중간본) 十一 7>

阿 大陵 又曲也 又慢磨聲 又美貌 又棟也 倚也 近也 俗音 하 <四聲通解 下 26b>

阿 ㅅㅁ 아 隈也 曲也 丘也 又慢應聲 又音遏 釋典 一難 又美也 <訓蒙字會(初) 下 8b>

한편, 이후에 필자는 俞昌均(1996:173)에서도 '長而美也'라고 한 字義에 의거해 '阿'가 '美'의 훈과 연결됨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6) 漢字를 시대의 前後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古字'와 '今字'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古字'는 그 數가 적어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이 '今字'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古字'의 이러한 兼職現象은 당시 常用되던 漢字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는데, 예를 들어 '群'은 상고시대에 '避', '關', '嬖', '僻', '覽', '譬' 등 후세에 나온 글자들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주송식(1989) 참조.
- 7) 이러한 생각에 대해 訓主音從의 기준을 내세워 어형의 앞 부분에 위치하는 차자는 訓讀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굳이 指定文字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安民歌>의 구절을 살펴볼 때 그리 설득력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安支尙宅都乎隱以多(안죽 덕도 업스니라) <安民歌 10>

: '安支尙'에서의 '支'은 先行字의 訓讀을 지시하므로, '安=업'이 된다. (金宗鎭, 1980:155)

누니 빚고 고히 고든 모미 千萬佛 ㅅㄹ미 아니라(眼橫鼻直身非但千萬佛이라) 〈金三 二 33〉  
 알핀 草木 ㅅㄹ름 니르시고(前に 止言草木히시고) 〈法華 三 36〉

여기서 ‘ㅅㄹ름’은 사이시옷과 ‘ㄷㄹ름’이 결합된 형태라고 추정된다. ‘阿冬音’에서 사이시옷의 결합에 대해 金完鎭(1985b:106)에서는 그것이 고대국어에서의 음성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인지 단순히 ‘ㅈ’로 반영될 것이 빠진 탓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ㄷㄹ름’의 통사론적 속성을 염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음성이거나 표기의 문제로 처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ㄷㄹ름’의 後代形인 현대국어의 ‘따름’은 이제 체언 뒤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반드시 관형사형어미 ‘-(으)ㄴ’이 연결된 용언 뒤에 나타나므로 이는 依存名詞로 처리된다. ‘ㄷㄹ름’이 지닌 이러한 依存性이 (5)에서 명사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라는 표지로 나타난다고 할 때, ‘冬音’이 ‘ㄷㄹ름’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ㅈ’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冬音’을 ‘ㄷㄹ름’으로 해독한 (1-나)의 ‘두던 ㄷㄹ름곳 ㄷㅎ시온’은 전체 詩想을 고려해 볼 때, 너무도 어색한 뜻이 되어 버린다. 金完鎭(1985b)에서는 이를 ‘눈두덩 불두덩 좋으신’이라고 현대어역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潤色된 意譯이라고 하겠다. 이를 語形대로 直譯해 보면 ‘(눈/불)두덩만 좋으신’ 정도가 될 수 있다. 竹旨郎을 追慕하며 그의 모습을 떠올리는 得鳥가 竹旨郎의 모습 중 눈두덩이나 불두덩만이 보기 좋다고 표현했을 리는 萬無하다. 이것은 향가 해독의 또 하나의 어학적 기준으로 제시된 脉絡一致의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 3. ‘阿冬音’ 解讀의 可能性

3.1. 2장에서 살펴본 金完鎭(1980, 1985b)의 해독에 대한 반성은 ‘阿冬音’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세 개의 借字를 모두 音讀하는 입장으로 되돌

아오게 한다. 이것은 단순히 守舊의인 입장에서의 回歸가 아닌 새로운 모색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통한 발전적인 復歸라고 하겠다. 한편, '阿冬音'에 이어지는 '乃此好支賜烏隱'에 대해서는 金完鎭(1985b)의 해독이 語學的인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乃此'를 訓讀과 末音添記로 이루어진 添辭 '-긔'으로, '好支賜烏隱'의 '支'를 指定文字 '支'으로 파악하여 이를 '도흐 시온'으로 해독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로의 작업은 音讀되는 '阿冬音'이 어떠한 형태로 再構되어야 하는가와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3.2. 池憲英(1963, 1964)에서는 '阿冬音'의 재구를 위해 '阿尸兮', '阿冬兮', '斤烏兄', '阿等邊', '迎日' 등과 같은 지명들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阿冬音'의 '阿冬'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필자는 '阿冬音'의 어형 재구를 위해서는 마지막의 '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어형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할 때 확실한 것은 그 말음이 'ㅁ'으로 끝나는 어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阿'를 음독자로 처리할 경우 '阿冬音'은 일단 '아冬ㅁ'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冬音'으로 기울게 된다. '冬音'은 차자 '冬'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한 음절이 될 수도 있고 두 음절이 될 수도 있다. '阿冬音'에 대한 기존 해독이 '아Vm'계(아름, 아돔 등)와 '아tVrVm'계(아두름, 아드름, 아돌음, 아돌음 등)로 나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音'이 국어의 말음 'ㅁ'을 표기하기 위한 대표적인 音讀字라는 것은 여러 차자표기 자료들을 살펴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冬'의 경우에는 이것이 訓讀된 차자인지 音讀된 차자인지 분명치 않다. 梁柱東(1965)에서는 '冬'을 '等'의 戲書로 보아 이를 訓讀한 형태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 두 한자가 類音字이기 때문에 통용된 것이라는 일관성이 결여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兪昌均(1996)은 '等', '喩'와 함께 '冬'이 r帶複韻尾를 갖는다는 가설하에 그 상고음을 \*tɔrŋ, \*torŋ'으로 추정하고 여기에서 '-ng'이 삭제된 것

이 우리의 차자표기에서 사용된 '둘, 들'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金完鎭(1985a)에서는 '冬'을 '月'의 초서체에서 轉訛된 특이한 훈독자로 생각하였다.

일반적으로 '冬'은 '둘' 형태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조선 후기에 보이는 「儒胥必知」, 「語錄辯證說」, 「吏讀便覽」 등과 같은 여러 이두 자료집들에서 '不冬'과 같은 이두가 '안들'로 표기되어 있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不冬'은 향가나 고려시대 석독구결과 음독구결,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두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존재로 'ㅎ 들 아니 ㅎ다'와 같은 15세기의 부정문 형성에 이용되는 '-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不冬'은 '안들'로 그 형태가 추정되고 그 형태론적 구성은 부정소 '안'에 형식명사 '들'이 융합된 '들'이 합쳐진 것으로 파악된다.(李丞宰, 1992)

'冬音'의 형태 재구를 위해 필자는 「三國史記」 地理志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동일 표기의 지명들을 살펴보았다.<sup>8)</sup>

- (6) 가. 江陰縣 本高句麗 冬音奈縣 … 今河陰縣 〈史記 卷35 地理二 6a〉  
 冬音奈縣 一云 休陰 〈史記 卷37 地理四 4a〉  
 나. 耽津縣 本百濟 冬音縣 〈史記 卷36 地理三 10b〉  
 다. 冬音忽 一云 歧鹽城 〈史記 卷37 地理四 4b〉  
 海臯郡 本高句麗 冬多<sub>一作音</sub>忽郡 … 今鹽州 〈史記 卷35 地理二 6b〉

이들은 고구려와 백제의 지명으로 공통적으로 '冬音'의 표기를 포함하고 있다.

(6-가)의 '冬音奈縣'은 현재 江華郡 河帖面の 옛지명으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一云 休陰'이라는 異表記이다. '休'를 '그만두다'의 '두'와 관련지어 본다면(류렬 1983), '休陰'을 '듬'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8) '冬音'의 표기는 이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홍기문(1956)에서는 생선을 세는 단위로 사용된 이두 '冬音'에 주목하고 이것이 현대어의 '두름'과 연결되는 것에 착안해 '阿冬音'을 '어두름'으로 재구하였다. 필자로서는 이 역시 매우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하나 고대국어 '阿冬音'의 '冬音'과 현대어의 '두름'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제의 지명인 (6-나)의 '冬音縣'은 지금의 康津郡 康津面을 가리킨다. 이것의 개정된 지명 '耽津縣'과 비교해 볼 때, 이곳의 '冬音'은 '耽'과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국어 시기에 有氣音 계열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이 때 '耽'은 '담' 정도로 그 음가를 재구해 볼 수 있다.<sup>9)</sup> 이 때 '담'은 산이나 바다가 마치 담처럼 원형으로 둘러쳐진 지형에 붙는 지명이다.(千素英, 1990)

한편, (6-다)의 '冬音忽' 또는 '冬𪛗忽'은 현재의 黃海道 延白郡으로 그 異表記 '跂鹽城'이 주목된다. '跂'는 '메주'를 뜻하고 '鹽'은 '소금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곳의 '冬音'은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醬을 담그는 것과 관련지어 동사 '담다'의 어간 '담'과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헌에 등장하는 '담다'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장, 짓갈, 술 따위를 만들려고 재료들을 섞어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는 것을 말한다.

(7) 가. 소곰 셋거 스이스이 메조 너허 드므면 (救荒 11a)

나. 짓 드마 머기면 도흐니라 (痘瘡 상:45a)

다. 거른 콩 붓가 드민 술의 두 돈식 풀어 먹이라 (胎產 39a)

「三國史記」地理志의 지명 표기 '冬音'에 대한 관찰은 모음의 불안정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대략 tVm'의 형태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 필자는 '冬'이 일반적으로 '돌' 형태를 표기한다는 점을 감안해 tVm'의 V를 잠정적으로 'ㄹ'로 생각하고자 한다. '돌'에서 'ㄹ'이 생략되어 표기되는 것은 정통적인 표기는 아니지만 차자표기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梁柱東(1965)에서 略音借로, 金完鎭(1980)에서는 代替添記라고 명명된 것으로 '直等隱(고든)', '八陵隱(가론)' 등과 같이 향가에서는 물론이고 '非陵音(비름)'과 같은 「鄉藥救急方」의 표기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

9) 김선기(1967:288)에서도 '耽津縣'을 '담나루'로 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므로 필자가 추정한 '阿冬音'의 재구형은 '아듬'이 된다.

이 재구형 '아듬'과 관련해 金完鎭(1980)에서 제시되었던 (1-가) 'ㅁ듬'의 '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ㅁ듬'은 '阿冬音'의 '阿'를 訓讀하고 '冬音'은 그것의 末音添記로 상정한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冬音'을 'ㅁ듬'의 '듬'을 위한 말음첨기로 보는 것은 다른 말음첨기의 예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예가 된다. 그것은 두 개의 차자를 이용해 한 음절 전체를 말음첨기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阿'의 훈독을 인정하여 '阿冬音'이 'ㅁ듬'을 표기하기 위한 훈독자와 말음첨기자의 결합표기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阿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ㅁ듬'이 지금은 가능한 해독의 후보형에서 탈락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말음첨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金完鎭(1985b)에서 왜 'ㅁ듬'을 버리고 '두던 드름'을 새로운 재구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도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sup>10)</sup>

필자가 '阿冬音'의 재구형으로 제시하는 '아듬'에 대해 일찍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 그런데, 「阿冬音」을 「아듬」으로 再構해야 하는 데는 한 가지의 難點이 있다. 그것은 「冬」과 「音」이 합해서 「듬」으로 읽는 것이 「冬」字의 全般의인 表記面에서 可能하나 하는 것이다. 既論한 바와 같이 「冬」의 聲母만을 取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徐在克, 1975:65).

'冬'과 '音'의 결합이 '듬'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徐 교수는 '듬'을 '冬'의 'ㄷ'과 '音'의 'ㅇ'이 합쳐진 것으로 본 것인

10) 필자는 末音添記에 관한 다음과 같은 金完鎭(1980)의 분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a) 無添記 (b) 純正添記 (c) 代替添記 (d) 附加的添記 (e) 確認添記  
말음첨기를 語形의 示唆을 위해 訓讀字 밑에 받쳐 적는 것이라고 볼 때, (c)와 (d)는 단순한 첨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조사(cf. 前衣(알피), 筆留(부드로))나 용언의 어미(cf. 至去良(니르거라), 去隱(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필자는 이 역시 實辭와 동등한 독립된 借字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末音添記라고 일컫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데, 필자가 제시한 '듬'은 '冬'의 'ㄷ'와 '音'의 'ㅁ'이 합쳐진 것으로 이러한 패턴의 결합구조는 차자표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3.3. 다음으로 '阿冬音'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자. '阿冬音'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형태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8) [어디쯤](小倉進平), [美](梁柱東, 김선기, 鄭然燦,<sup>11)</sup> 최남희), [친근한 사이](홍기문), [統合](池憲英), [아득함](徐在克), [아쉬움](정렬모), [애달픔](金俊榮), [은밀히, 남몰래](兪昌均), [얼마전까지도](申載弘),<sup>12)</sup> [두두룩함, 두두러짐](양희철) 등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관련시켜 '阿冬音'의 의미를 기술했을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나 근거에 있어서 아직 해독의 正鵠을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阿冬音'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阿冬音乃此好支賜烏隱'에 대한 梁柱東 박사의 '아름 나토샤온'이 비록 '乃此好支賜烏隱(나토샤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지만<sup>13)</sup> '阿冬音'의 의미를 [美]로 파악한 것은 본의에 가장 근접한 해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慕竹旨郎歌>의 詩想에 비추어 다음에 오는 '兒(중)'과 관련시켜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阿冬音'의 재구형으로 제시한 '아듬'을 [美]의 의미로 파악

11) 鄭然燦(1972)는 '阿冬音'의 의미를 [美]로 파악하면서도 이것이 外貌가 端正하여 內心의 똑똑함까지도 짐작될 때를 형용하는 경상도 방언의 '아당그러지다'와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12) 申載弘(1996)은 '阿冬音乃此'를 시간적인 경과를 뜻하는 동사 '안-'의 명사형 '아듬'에 접미사 '-너'가 붙어 '아듬너'라는 부사가 되고 여기에 속격의 '스(此)'이 붙은 형태로 파악하였다.

13) 이는 金完鎭(1980:59)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 '乃此'로 표현된 '나'와 '호(好)'가 결합하여 '나토'를 형성한다는 것은 당시 음절말 不破音化가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에 배치되며, '나토샤온(乃此好支賜烏隱)'이라는 해독은 전체를 音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과연 '아담 > 아롬'과 같은 변화를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梁柱東(1965)에서 언급되었고 여기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들이 있었다. 이제 필자 역시 이러한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중세국어 '아롬답-'의 어근 '아롬'이 '아담'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굳이 'ㄷ→ㄹ / V\_\_V'와 같은 규칙이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음운규칙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것은 모음 사이에서 'ㄷ'이 'ㄹ'로 변화한다는 音韻規則을 함부로 濫用하는 것은 향가의 해독을 非科學적으로 만드는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음운규칙이 국어에서 형태론적 정보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전형적인 形態音韻規則임을 상기하고자 한다.<sup>14)</sup>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5세기의 '아롬'은 [美]의 뜻이 아닌 [私]의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兪昌均(1996)에서 지적되었듯이 '아롬'이 [美]의 뜻을 갖는 것은 형용사화 접사 '-답'이 붙은 '아롬답'으로 사용될 경우뿐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美]의 뜻을 갖는 '아롬'은 '아담 > 아롬'의 변화를 겪은 어근이고 [私]의 뜻을 갖는 '아롬'은 처음부터 그 형태가 '아롬'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본다. 즉, 두 어휘가 15세기에는 동일한 형태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어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 형태로의 변화가 [美]의 뜻을 갖는 '아롬'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본다.

이제까지 <慕竹旨郎歌>의 '阿冬音'에 대한 기존의 해독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필자는 <慕竹旨郎歌>의 세 번째 구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에 대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독을 想定한다.

14) 古代國語에서 다음과 같은 單語들은 母音間的 \*t를 가지고 있었는데 中世國語에서 'ㄹ'로 변하였다. \*pator(海), \*hotar(一日), \*katar(脚) 등. (李基文, 1972:70).

## (9)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慕竹旨郎歌 3〉

[해 독] 아돔곳 도흐시온

[현대역] 아름다움이 좋으신

이는 다음 구절의 '兒(중)', 즉 竹旨郎의 모습을 꾸미는 말로 '아돔(아름다움)'이 竹旨郎이 지닌 美의 세계라면 '도흐시온(좋으신)'은 그것을 보고 느낀 得烏의 感情的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 4. 結語

이제까지 '阿冬音'의 해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아름다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돔'을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해독으로 상징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阿冬音'에 대한 결정적인 해독의 端緒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필자는 한편으로 '阿冬音'이 중세국어로 계승되지 못한 신라의 고유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열어 놓고 있다.<sup>15)</sup> 어쩌면 이런 끊임없는 가능성의 탐구가 鄉歌를 둘러싼 解讀의 世界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慕竹旨郎歌〉의 '阿冬音'은 그 해독의 성공 여부는 다음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한 借字의 運用과 末音添記의 用法에 대해 熟考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小倉進平 이후 향가의 해독은 解讀者의 주관에 따라 그 해독이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風潮를 止揚하고 그 동안 국어학계가 쌓아 올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비판적이고 엄격한 태도로 해독에 적용하여, 향가의 해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문과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金完鎭 교수의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15) 이러한 생각은 신라시대의 언어와 중세국어의 차이에 주목했던 拙稿(1994:91)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進歩라야 올바른 학문적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완전한 解讀의 길로 가는 正道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김 유 범

고려대 박사과정

465-012 경기도 하남시 덕풍2동 372-157

전화 : 0347-791-6022

전자우편 : kwangli@chollian.net

접수일 : 1998.4.19

게재결정일 : 1998.5.20

## 참고문헌

- 김동욱. 1993. "慕竹旨郎歌." 「鄉歌文學研究」, 一志社.
- 김선기. 1967. "다기마로 노래 -신라 노래 들-." 「現代文學」 2월호(통권 146).
- 金完鎭. 1979. "慕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震檀學報」 48, 震檀學會.
- 金完鎭. 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完鎭. 1985a. "特異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研究." 「東洋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金完鎭. 1985b. "慕竹旨郎歌 解讀의 反省." 「國語學論叢」(羨烏金炯基先生 八耋紀念), 語文研究會.
- 金完鎭. 1986. "新羅 鄉歌의 語學的 分析." 「傳統과 思想(Ⅱ)」(韓國思想史 大系 86-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金裕範. 1994. "高麗建國의 國語史的 意味." 「한국어문교육」 7,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 金俊榮. 1979.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 류 렬. 1983.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朴炳采. 1966. "鄉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국어국문학」 32.

- 徐在克. 1975.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慶尙道方言의 觀點에서-」(韓國學 研究叢書(3)), 啓明大學出版部.
- 申載弘. 1996. 「鄉歌 難解句의 再解釋(3) - 慕竹旨郎歌.」 「先清語文」 24,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 安秉禧. 1987. 「語學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에」(韓國學資料大系 87-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梁柱東. 1965.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 양희철. 1997. 「삼국유사 향가 연구」, 대학사.
- 俞昌均. 1996. 「〈補訂〉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 李基文. 1972. 「改訂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李基文. 1973. 「千字文 解題.」 「千字文」(東洋學叢書 第三輯), 檀大出版部.
- 李丞宰. 1992. 「高麗時代의 吏讀」, 太學社.
- 정렬모. 1965. 「향가 연구」, 사회 과학원 출판사.
- 鄭然榮 외. 1972.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주송식. 1989. 「고대한어통론」 學古房.
- 池憲英. 1991. 「「阿冬音」에 대하여 -「慕竹旨郎歌」의 解讀解釋-」 「鄉歌麗 謠의 諸問題」, 太學社.<sup>16)</sup>
- 千素英. 1990. 「古代國語의 語彙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최남희. 1996. 「고대국어 형태론」, 博而精.
- 홍기문. 1956.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로동신문출판 인쇄소.
- 小倉進平. 1929. 「鄉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大學校紀要. 「小倉進平博士 著作集(一)」, 1973, 京城大學國文學會)에 재록.

16) 이는 1963년 8월에 脫稿되어 「韓國言語文學」 創刊號(1963.12)와 第2輯(1964.12)에 수록되었던 것을 修正한 원고이다.